

날뛰는 강력범죄 경찰은 '속수무책'

광주, 여의사 피살·금은방 강도 등 수사 '오리무중'

광주가 살인·강도사건 공포에 떨고 있다. 경찰이 열거할 살인과 대형 강·절도 사건 등 강력범죄 수사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의사 피살사건을 비롯해 50대 남성 3인조 살해, 3인조 금은방 강도, 동(洞) 주민센터 절도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 인근 앞길에서 발생한 광주 모 종합병원 의사 안모(여·43)씨 흉기 피살사건은 사건 초기 목격자의 진술을 얻어내고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꽂초와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했으나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 범인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계통의 승용차를 찾기 위해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했지만 실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원한관계 여부와 10년 전 발생한 안씨 교통사고 피해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역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50분께 남구 구동 김모(39)씨 형제가 하는 보석공방 3인조 강도사건도 답보 상태다. 경찰은 당시 금은방에서 채취한 지문 30점과 흉기·구두·용의차량, 용의자 도주로 등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으나 범죄와 관련된 추가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특히 범행 전 범인들이 과속단속 카메라 등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포상금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코앞에서 두 번이나 범인을 놓치고도 사건 발생 5일이 넘도록 지휘체계 혼선으로 갈팡질팡하는 등 수사에 허점도 드러났었다. 이 일로 경찰관 7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19일 북구 중흥동 H교회

화단에서 일어났던 50대 남성 둔기 피살사건도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용의자 모습을 포착했으나 화질이 선명치 못해 인상착의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지난 4월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확인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현재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살인 6건을 포함한 7천724건(검거건수 5천893건, 검거율 77.5%)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전남 가운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경찰청장은 지난 5일 전국 지방경찰청의 형사·수사과장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주요 미제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6월항쟁 계승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6·10 6월 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광주전남준비위원회 대표들이 8일 오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광주 금남로 등 광주·전남 5곳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잇따른 시국선언...6월 광주 '긴장'

"국정쇄신" 교수·학생 이어 시민단체 가세

6월항쟁 22주년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와 학생,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은 9일 오전 광주YMCA 백계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00여명의 교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교수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검찰·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 ▲추방 철회 및 추모 기간 중 연행·구속자 석방 ▲대북관계 개선 ▲민주개혁 정책 추진 등 5개 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광주여대, 조선이공대, 한국방송통신대,

목포해양대, 대불대, 나주대, 전남도립대 등 10개 대학 학생들도 이날 오전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없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대한 규탄과 남북관계 파탄, 대학 등록금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100여개 시민단체들도 6월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된다.

범국민대회 광주전남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0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등지에서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준비위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주관한 '광주전남시민추모위원회(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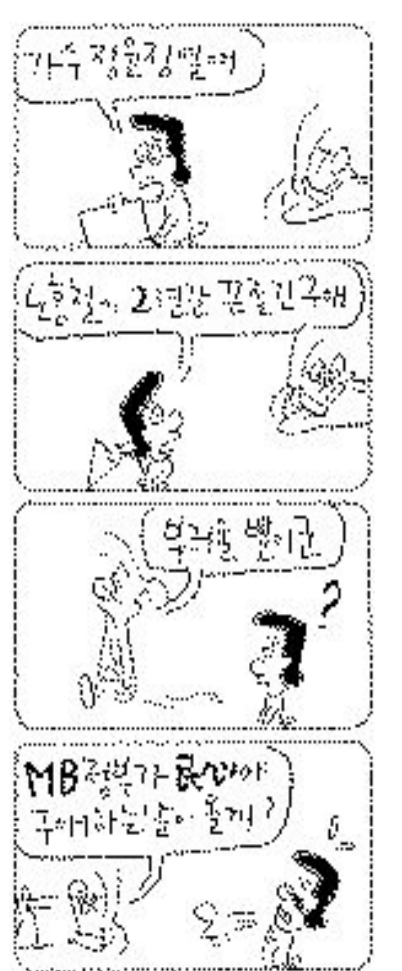
모위)' 소속 단체를 포함해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여성·노동·학계·종교계를 망라한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 앞서 8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분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사과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이 6월항쟁 정신을 기리고,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회복 국민대회 여수준비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여수시청 앞 마당에서 6·10민주항쟁 정신 계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수시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7824) 김종두



공무원, 모친 묘 앞에서 자살

8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태령동 한 비밀하우스 안에서 전남도 4급 서기관 A(6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출 신고를 접수받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비밀하우스 옆에는 어머니의 묘가 있었으며, A씨가 술과 함께 섞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이 발견됐다. 퇴직을 앞둔 A씨는 자수 우울감을 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귀자" 거절에 애꿎은 남친 폭행

○중학생 9명 이 여고생 2명에 게 "사귀자"를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여고생의 '남친'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8일 고교생과 사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김모(15)군 등 9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군은 지난 7일 밤 광주시 동구 I아파트 벤치에서 여고생들에게 말을 건네다 A(16)양의 '남친'인 K(17)군이 나타나자 친구 8명을 뒤에 세워둔 채 얼굴 등을 때린 혐의.

○이들은 "남친친구가 같이 있는 걸 모르고 말 걸었다가, 서로 사과하고 잘 마무리 지었는데 뒤늦게 이를 오해한 다른 친구가 와서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사건이 커졌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

광주고법 판결, 유사 소송 영향 '주목'

법원이 이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는 동거기간이 7년 남짓인 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이 넘고, 자녀는 중·고생 등 2명이지만 A씨가 다른 남자 사에서 낳은 신생아는 장애가 있어 A씨의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부부 재결합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이혼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유책 배우자의 이

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과 상급심 판단 결과 등이 주목된다.

A씨 부부는 1990년 혼인신고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A씨는 1997년 가출한 이후 한 달 가량을 뺨 나머지는 남편과 따로 살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2월 딸을 낳자 법원에 딸의 치료와 혼인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항소했다.

/최희경기자 choi@kwangju.co.kr

'쌀 직불금' 1,678명 조사

광주지검, 26일까지 자진 반납 유도

검찰이 광주·전남지역의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적발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 9천242명 가운데 광주·전남 거주자 1천678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26일부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부당 수령자가 1천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6명) ▲200만원 이상(62명) ▲300만원 이상(36명) ▲500만원 이상(12명) ▲700만원 이상(9명) ▲1천만원 이상(10명)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조사착수 이전까지

300만원 미만의 부당 수령자가 수령금을 자진 반납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300만원 이상이라도 자진 반납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부당 수령자가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입건된 수령자들에게 대해서는 일반 사기 사건보다 높은 구형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현재까지 수령금을 자진반납한 수령자는 498명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수사없이 즉시 사건을 종결했다.

/최희경기자 choi@kwangju.co.kr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제20회시험 10월 25일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대개강 6월 1일 (첫선도 시작)

국비지원 선착순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친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친단점 4층

원어민 1:1 영어회화 초·중·고교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인터넷 실시간 화상 영어!

· 2012년 교과부 한국형 TOEFL 말하기 고득점을 위해
· 광주유니버시티 외국인 맞이를 위해
· 여수해양 EXPO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강의형태 1:1, 1:2, 10:20, 20:40>

외국인 1:1 매일60분 압구정 Trend, 압구정 Pride

압구정영어회화 070-7433-0594

www.영어말하기.kr

= 2010년 합격을 대비한 여름방학 대특강!! =

7.9級 공무원 쏙직렬

30.40 합격특법반모집 학교제관감법점마철교보보관각소기 합 후 소방인력 8395명 지원한다

정행무제사원찰약공정호전호지방술 5년간 소방인력

수강료 보조금 수혜안내

7월 1일 (주야 24시간) (현재상대면접수중)

수강료 25%(D/C) 교재 15%(D/C) 수강료 50%(D/C) 교재 15%(D/C)

주거지리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www.mdgosi.co.kr ☎ 222-4560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경 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p>6개월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원생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25%(D/C) 교재 15%(D/C) 	<p>1년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원생 6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D/C) 교재 15%(D/C) 	<p>합격배출 1위 교수진</p> <p>영어 이명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영어 70% 합격률 꼭 찍어 쉽게 강의 경찰영어 15년 	<p>경찰학 오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철 경찰학 기본 특강 남부 영학원 전임 광주메가경찰학원 전임 	<p>수사 최주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영희 22년 광주 순원 배민 전임 광주메가경찰학원 전임
<p>합격 배울 1위 교수진</p> <p>영어 이명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영어 70% 합격률 꼭 찍어 쉽게 강의 경찰영어 15년 		<p>합격 배울 1위 교수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철 경찰학 기본 특강 남부 영학원 전임 광주메가경찰학원 전임 	<p>수사 최주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영희 22년 광주 순원 배민 전임 광주메가경찰학원 전임 	